

금강산 관광 재개는 공존과 상생의 발로입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존과 상생의 발로입니다.

‘동북쪽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범기보살이 1만 2천 보살을 거느리며 상주하고 있다’고 설하는 화엄경을 통해서 금강산과 불교는 매우 깊은 인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강산이 민족의 명산으로 자리하는 것은 민족의 종교로서 널리 퍼져있는 불교의 영향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레 1998년 11월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처음부터 불교계는 금강산이 민족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194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말해 주듯이 금강산은 남북을 잇는 민족화해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금강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관광객 피격사건 때문입니다. 지금도 온 국민은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 앞에 금강산관광 중단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누구라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4년이 흐르는 동안 이 불행한 상처를 치유하고 더 큰 화해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노력보다는,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만 달려온 듯합니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 또한 이를 계기로 한 발 더 성숙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공존과 상생의 해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강산관광 재개를 서원하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의 죽음을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더는 남북이 서로 다투고 겨루는 불행의 역사를 끝내는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남북 당국이 각기 처한 정치적 상황과 입장으로 인해 해결점을 찾는데 진전이 미진하다면, 이제 민간이 나서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며, 선각자들만이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받들어 여기 모인 분들의 원력과 실천으로 앞장서서 역할을 맡아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금강산에 가는 날은 적당한 봉합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남북간의 신뢰의 초석을 쌓은 다음 이루어 질 것입니다. 비운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남북의 관계가 더욱 다져지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9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